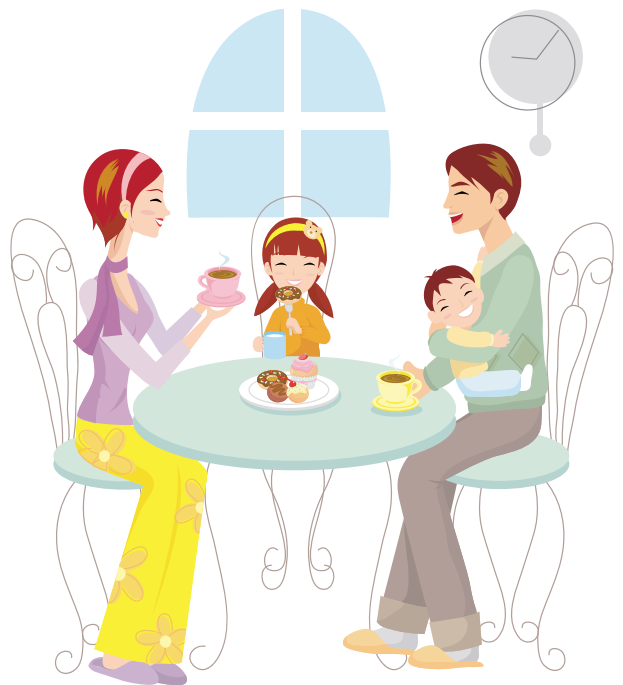






「대안가정 길잡이」를 발간하며

이 수 형 이사장

출산을 꺼려하고 양육을 기피하는 이 시대에 위기에 처한 생명을 아무 조건 없이 가슴으로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대안가정 가족여러분에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기간동안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친 가정을 대신 해서 아동을 보호할 대안가정을 찾아주고, 아동이 대안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대안가정을 위한 종합지침서인 「대안가정 길잡이」를 발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대안가정 길잡이」는 그동안 대안가정으로 참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품어 안은 대안가정 부모님들과 함께한 많은 분들의 산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대안가정 길잡이」가 발간됨으로써 현재의 대안가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안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과 또 이들을 돕는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더욱 밝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친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 이 책이 이러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대안가정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길잡이의 역할 - 「대안가정 길잡이」 발간을 축하하며

배성우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5년간 대안가정과 위탁아동을 위한 사업을 펼쳐 온 대안가정운동본부가 그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집 「대안가정 길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안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책이지만, 이 책의 의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현장이 그러하듯이 그동안 대안가정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땅한 가이드북 하나 없이 활동해왔으며 단편적인 정보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안가정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낸 것은 활동가들에게도 대안가정 부모들에게도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위탁에 대한 대화나누기,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 친가정 복귀 등 실제 대안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진정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낸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다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널리 알려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제 대안가정운동본부는 혼자 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대안가정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험난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행보를 이 책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안가정과 위탁아동을 돌보는 바쁜 실무의 현장 속에서 하나, 두울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다람쥐가 도토리 줍듯이 차곡차곡 갈무리해 온 대안가정운동본부의 활동가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길잡이란 ‘앞에 나서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 혹은 ‘앞으로 나아갈 길의 목표가 되는 사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2002년 4월에 설립하여 짧은 역사 속에서 부모교육지침서 ‘대안가정 길잡이’를 내게 된 대안가정운동본부가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갈 길의 목표를 제시하는 대안가정운동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어린 생명을 품고 시행착오로 고민하는 가정을 위한 지침서

김선미 (대안가정 엄마)

아침에 아이가 밝게 인사를 하고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한 뼉씩 커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를 만나던 날을 떠올려 봅니다.
작고 예리던 그 조그마한 눈망울을...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게 되는 아이이지요.
가정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우리의 이웃이지요.

어린 아이를 가슴으로 품는 일은 쉽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어린 눈동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어린 아이를 가슴으로 품는 일은 어렵습니다.
마음만으론 어려운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렇게 등 떠밀린 어린 생명과 그들을 가슴으로 품는 가정을 위한 작은 길잡이가 빛을 비춰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생명을 가슴에 품고 시행착오로 고민하는 가정을 위한 지침서가 되리라 생각하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안내서를 통해 더 많은 '대안가정'이 생겨나고, 대안가정으로 살아가는 동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아이와 대안가정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내서를 통해 다 함께 웃는 날이 올 것을 희망합니다.
어린 생명도,
그들을 품는 가정도,
곧 회복되어 다시 자녀를 보듬게 될 친가정도,
모두가 행복한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일 러 두 기

「대안가정 길잡이」를 읽기 전에

김명희 사무국장

「대안가정 길잡이」는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내 가정에 맞아들여 보살피는 대안가정 부모님들을 위한 지침서로, 2002년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설립된 이후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공동저자는 바로 대안가정 부모님들이다.

대안가정 부모교육과 자조모임은 2003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나, 2004년부터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을 분리하여 실시하면서 정례화 되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에는 6주 과정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Active Parenting Today)을 통해 대안가정의 일상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내 함께 나누는 효과를 보았고, 2006년에는 6회에 걸친 ‘대안가정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대안가정 부모님들의 갈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다.

대안가정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이루어진 교육과 자조모임의 효과는 엄청났다. 다양한 문제와 욕구들이 분출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한 결과가 바로 「대안가정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교육이나 자조모임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바로 ‘위탁에 대해 대화하기’와 ‘친가정 귀가준비’에 관련된 문제였다.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은 만남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수궁하고 인정하게 된 부분들을 추려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지침서이다. 따라서 이 지침서의 내용들은 대안가정 운동본부에 소속된 대안가정을 통해 일차적인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에서 소개한 ‘나-전달법’, ‘적극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걸림돌’,은 Michael H. Popkin 박사의 「Active Parenting Today」(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에서 인용했다. 이는 대안가정운동본부에 소속된 대안가정 부모들이 대부분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과정을 이수했으며, 실제적인 아동양육에 있어 이 프로그램이 가장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에 의해서다.

지면 관계상 충분한 내용을 신지 못하고 추려내면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었다. 다음에 새로이 「대안가정 길잡이」를 발간할 때는 더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풍부한 자료를 담아낼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 「대안가정 길잡이」가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해피빈에 감사드린다.



대안가정 길잡이

-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

1. 대안가정	6
2. 위탁아동	11
3. 대안가정 사례	14
4. 위탁에 대해 대화하기	20
5. 아동 - 친부모 만남	23
6. 위탁아동 귀가준비	26
7.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29
8.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하여	32
9. 가정위탁과 입양	35
10. 궁금해요!	38
대안가정운동본부	41



1. 대안가정

대안가정이 된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아무런 조건없이 내 가정을 열어 맞이하는 것이다.

1. 대안가정이란

대안가정이란 부모의 이혼, 질병, 가출, 학대, 빈곤,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상실한 아동을 친가정을 대신해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대안가정의 형태

아동을 위한 대안가정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입양가정, 위탁가정, 소규모 그룹홈 등이 대안가정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안가정은 위탁가정을 지칭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① 입양가정

입양가정은 아동에게 가장 안정적인 대안가정이다. 입양은 영구적인 대안가정으로, 아동이 입양되는 순간 아동의 친권이 입양부모에게 귀속되며 생부모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입양아동은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위탁가정

위탁가정은 보호자(부모)의 동의하에 일정기간동안 아동을 보호·양육한다는 점에서 입양과 구별된다. 위탁 시 아동의 친권은 친부모에게 있으며, 위탁가정과 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함께 생활한다. 위탁은 대부분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친가정으로 귀가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 부모의 연락두절이나 사망, 친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거나 회복이 불가능하여 돌아갈 가정을 상실한 경우 영구적인 위탁이 요구되지만, 아동을 영구위탁 할 대안가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 대안가정을 전전하게 될 수도 있다.

③ 소규모 아동그룹홈

아동그룹홈이란 5명 내외의 아동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생님이 가정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이나 일반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 영구적인 위탁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3. 대안가정의 조건

- ① 30~55세로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는 가정
- ②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가정
- ③ 위탁양육은 친자녀 포함 4명까지 가능
- ④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의 전력이 없는 가정
- ⑤ 가족이 모두 아동위탁에 찬성한 가정
- ⑥ 아이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가정
- ⑦ 대안가정 부모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가정

※ 위의 조건 중 부모의 나이나 아동 수는 절대적이지는 않다.



4. 왜 대안가정이 필요한가?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도 있다. 심지어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사라져버리거나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결행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안가정은 위기에 처한 부모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줌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 재기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지하고 도와준다.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이 해체되어 더 이상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수 없게 된 아동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못해 무자비하기까지 하다.

〈표1〉에서 보듯이 연간 1만 명 내외의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중 50% 정도가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전체 요보호아동 중 50% 정도가 시설보호조치 되고, 23% 정도가 가정위탁보호 되었다. 입양의 경우, 시설에 일시보호 되었다가 입양된 수를 포함하면 연간 4천여명의 아동이 국내외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입양아동이 주로 미혼모에 의한 호적이 없는 신생아인 점을 고려하면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해 발생한 아동 대부분이 시설로 보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1〉 연도별 보호아동의 발생과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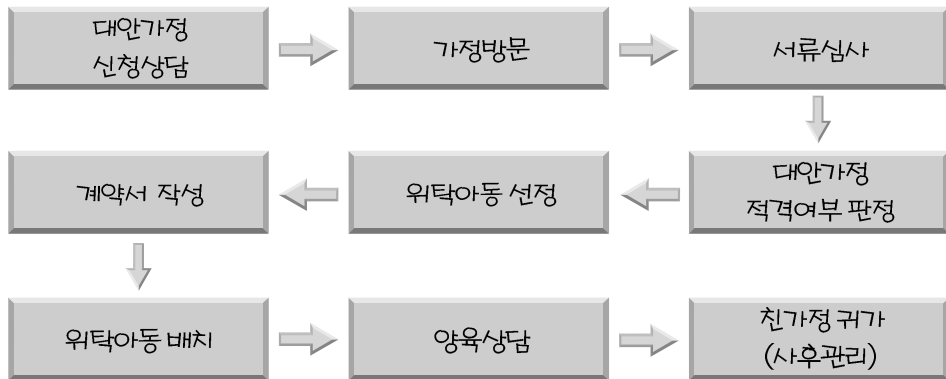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계	발생원인					처리결과			
		기아	미아	가출 비행 부랑	미혼모 아동	빈곤 실직 학대 등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입양	소년 소녀 가정
2005	9,420	429	63	1,413	2,638	4,877	4,818	2,322	1,873	407
2004	9,393	481	62	581	4,004	4,265	4,782	2,212	2,100	299
2003	10,222	628	79	595	4,457	4,463	4,824	2,392	2,506	500
2002	10,057	634	74	749	4,337	4,263	4,663	2,177	2,544	673
2001	12,086	717	98	728	4,897	5,046	6,274	3,090	1,848	874

▲ 2006년 보건복지부 통계



5. 대안가정이 되기 위한 절차



※ 대안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통, 부모건강진단서 각 1통, 가족사진

6. 대안가정이 된다는 것은...

대안가정이 된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 가정을 열어 맞이하는 것이다. 대안가정 부모는 위탁아동을 만나기전부터 이미 아이를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안가정 가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안가정은 특별히 부유하거나, 특별히 고귀한 인품을 지녔거나, 특별히 고상한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대안가정 가족들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가정을 송두리째 한 생명을 위해 내어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안가정이 되는 것은 개인 가정에 대해 크나큰 결단을 요구한다. 단지 의식주를 함께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인격적으로 보살피고 동등한 가족구성원으로써 애정과 관심을 갖고 양육하는 것이다. 또 가족으로 함께 하는 동안은 자녀로, 형제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대안가정이 되기 위한 준비

누구나 대안가정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안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대안가정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대안가정으로 살아가는 일상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익숙한 일상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모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안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며 미리 예상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친자가 비록 어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동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지, 무엇이 달라질지 등 예상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의논해 보는 것이 좋다. 또 대안가정 부모교육을 통해 대안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야한다. 또한 먼저 대안가정을 하고 있는 가정의 사례를 통해 대안가정의 일상과 실재를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8. 대안가정이 되고 나서

① 상상하던 것과 다른 모습에 당황하지 말라

대부분은 대안가정이 되고자 마음먹으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게 된다. 새로이 가족이 된 아이와 사랑에 빠진 가족의 모습, 함께 나들이 가서 즐겁게 지내는 정경, 동생이 된 위탁아동을 잘 보살펴주는 친자의 모습 등. 그러나 대안가정의 일상은 동화가 아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선뜻 아이와 사랑에 빠지지 못하고 서걱거리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또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마음을 열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 아이와 승강이를 하면서 무력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대안가정에서의 초기과정은 기존의 자연스런 가족관계에 약간의 균열을 가져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하게 되면 대부분 회복되므로 처음에 상상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② 대안가정 일기를 쓰라

아동을 위탁양육하면서 대안가정 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 일기를 쓰게 되면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고, 아동양육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다른 대안가정의 일기를 읽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마련된 대안가정 일기를 가장 열심히 읽는 사람은 바로 아동의 친부모이다. 아동의 친부모는 대안가정 일기를 통해 매일 자신의 자녀를 만나고 기뻐하고 안심한다. 대안가정 일기는 친부모의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기도 한다. 비록 친부모가 글을 남기지는 않더라도 매일 일기를 읽고 있으며, 기다린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크다.

③ 대안가정 자조모임에 참여하라

다른 대안가정들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대안가정이 되고나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해받기가 어렵다. 미묘하고 뭐라 설명하기 애매한, 그러나 일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다른 대안가정 부모와 함께 나누는 것은 건강하게 대안가정을 유지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대안가정 길잡이

-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



2. 위탁아동

대안가정에 위탁되었을 때, 아동은 엄청난 감정의 홍수에 빠진다. 이러한 감정들은 학교문제, 우울증, 수면장애, 감정도절장애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1. 위탁아동이란

위탁아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으로, 친가정을 대신해서 양육해줄 다른 대안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위탁대상이지만, 중고등학생이 위탁되는 경우는 드물고 미취학아동이 주로 많이 위탁된다.



2. 어떤 아이들이 위탁되나?

- ①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 ②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③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하거나 방임되는 아동
- ④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동
- ⑤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중이거나 복역 중이어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
- ⑥ 기타 현실적으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위탁아동의 심리상태 및 특성

(1) 위탁초기의 심리상태 및 부적응행동

대안가정에 위탁되었을 때, 아동은 엄청난 감정의 홍수에 빠진다. 이러한 감정들은 학교문제, 우울증, 수면장애, 감정조절장애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한차례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동의 경우, 대안가정 가족들에게 쉬 마음을 열지 않고 대안가정 가족들의 사랑을 거부하기까지 하고, 새로운 가족을 믿어도 될지 또는 자기를 얼마나 수용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대안가정 가족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반대로 지나치게 협조적이거나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등 빨리 적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행동은 아동이 대안가정에서 또 다시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탁초기에 아동이 약간의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자아존중감

위탁되는 많은 아동들이 부정적인 자아상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가출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모를 떠나서 대안가정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자신이 나쁜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스스로나 주변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가져오며, 지속성, 성실성, 책임감이 결여되고, 자발적인 동기유발이 안 되는 등의 문제를 보인다.

(3) 친가정과 대안가정 사이에서 혼란



① 생활습관과 환경의 차이

친가정과 대안가정은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환경에서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인다. 식습관, 일상의 규칙, 가족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친가정에서 익숙하던 습관들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금껏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혼란을 경험한다.

② 대안가정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서 느끼는 죄책감

대안가정에 적응하게 되면서 아동은 대안가정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안가정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친부모에 대한 배신행위로 여겨져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로 친부모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대안가정 부모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두고 선을 긋는 아동도 있다.

③ 은둔

대부분의 위탁아동은 자신이 원해서 대안가정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아동은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대안가정으로 보내진 것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거나 분노를 가질 수도 있다. 아동이 친부모와 살지 못하고 대안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대해 부끄럽게 여길 경우,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인간관계 자체를 맺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4) 품행장애 아동

품행장애라 함은 도벽, 거짓말, 가출, 비행, 불성실, 무책임 등 다양한 부정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성이 상실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른바 반사회적인 성격유형을 일컫는데, 주로 아동에게 적용하는 용어다.

대안가정으로 오기 전에 아동은 친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일관성 없는 양육환경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부정적 생존전략을 습득하기 쉽다.

이런 아동들은 타인과 신뢰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단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눈치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며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품행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대안가정 부모는 무기력감과 분노감,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단지 사랑으로 품어 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3. 대안가정 사례

1. 위탁아동과 친자와의 나이 차이에 따른 사례

위탁아동의 나이나 성별, 성격 등과 대안가정의 상황 즉, 친자의 나이나 성별 및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친자와 위탁아동이 라이벌 관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연령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자와 위탁아동이 나이 차이가 적을 경우, 아동들 간에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상황은 가정위탁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곤 한다. 반면 친자와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오히려 친자가 양육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1) 친자와 나이 터울이 큰 가정에 위탁된 경우

A(6세, 남)는 미혼엄마와 생활하다 위탁되었다. A의 친모는 미혼의 몸으로 아이를 낳은 후 가족들로부터 A를 입양을 보내든지 고아원에 보내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가족들과 단절된 채 5년 동안 A를 양육해 왔다.

A를 맞아들인 대안가정은 중1, 중3 남매를 둔 40대 초반 부부 가정으로, 가족원 전체가 가족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A를 맞이하였다. A는 대안가정에 도착하던 날 말을 한마디도 안할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댔으나, 이내 대안가정 가족원과 동화되어 원래 한 가족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빨리 친숙해졌다. 중학생인 누나와 형은 A를 귀여워하여 잘 놀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돈을 모아 A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애정 어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안가정의 확대가족들(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이모부, 사촌들 등)도 A와 애정 어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과거 미혼엄마와 살면서 확대가족과 교류가 없었던 A로서는 행복한 가족 경험을 하고 있다.

A의 친모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안가정에서 해주었다며, 1년간의 대안가정에서의 생활이 A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2) 위탁아동이 친자와 연년생인 경우

B(4세, 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중인 부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불어난 카드 빚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중 본 기관에 위탁의뢰 하였다.

B를 위탁양육한 가정은 7세, 5세, 남매를 친자로 둔 30대 부부 가정이다. 대안가정에서 B에 대한 양육의사를 밝혔을 때 친자와 위탁아동이 연년생이라 더 어린 아동을 양육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갓난아기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으면서 B를 고집하였다. B의 상황이 다급하고 대안가정 양육자가 특별히 B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목하였기에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주의를 주고 연결 배치하였다.

B는 대안가정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다. 심하게 악을 쓰며 울고 똥을 싸는 등 대안가정 양육자를 지치게 만드는데다, 아직 어린 친자들이 B의 이런 행동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여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 대안가정 엄마는 거의 매일 본 기관으로 전화를 해 B의 부정적 행동과 태도에 대해 호소했고, 심지어는 B로 인해 친자들까지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다행히 위탁된 지 4개월 만에 B의 고모가 양육의향을 밝혀 귀가하였다.

아동의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아동과 대안가정간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며 우선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다.



2. 영아를 위탁양육한 가정

생후 1년 이하의 영아를 위탁양육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대안가정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전적으로 아동양육에 매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 어린 영아일수록 정서적인 충동이 없기 때문에 위탁양육 하는 동안 행복한 대안가정의 경험을 하게 된다. 몸은 고달픈 반면 오히려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C(8개월, 여)는 부모가 이혼하고 모가 양육권을 지정 받았고, 취업을 하여 C와 함께 살 주거 공간을 마련할 동안 C를 가정위탁 의뢰하였다.

C를 맞이한 대안가정은 6세 아들을 친자로 둔 30대 부부 가정이다. 대안가정 모는 스스로를 자기애가 강한 사람으로 표현했고 내 것, 내 가정, 내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주저하기도 했다.

친모와 처음 떨어지는 C는 대안가정으로 가는 동안 처절하게 울었다. 그러나 대안가정 모에게 안기면서 금세 울음을 그쳤고, 대안가정 모도 자신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C에 대해 자연스런 모성본능으로 감싸 안고 보살폈다. 한여름 더위에 땀띠가 나도록 안고 업고 하면서 키우는 정이 들어 4개월 만에 친모에게 귀가하게 되자 마음을 주체 못해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 빨리 기반을 잡은 친모를 축하하며 C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정성스럽게 정리하여 보냈다.

아마 이 가정에 생후 8개월의 어린 아이가 아닌 친자와 비슷한 또래가 위탁되었다면 참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3.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한 가정

D(24개월, 여)는 생후 12개월에 위탁되었다. B의 동생으로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소홀하게 양육받았고, 위탁 당시만 해도 소리를 내어 울지 못하고 인상만 터질 듯 찌푸려, 울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마에 八자로 골이 깊게 파여 있었다.

D를 맞이한 대안가정은 가정위탁의 경험이 많은 40대 후반 부부 가정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남매를 둔 가정이다.

D는 위탁 초기 음식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강해 우유를 먹다가도 다 먹어 가면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울먹였고, 밥상을 차리면 마음이 급해 어찌할 바를 몰라 곧 터질 듯한 울음을 삼키며 실룩거렸다. 3개월이 지나면서 처음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을 오히려 반길 정도였는데, 이후 아동의 울음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몇 시간이고 계속되어 대안가정 가족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낮잠도 전혀 자지 않을뿐더러 밤에도 잠을 자려고 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울었다.



아동은 2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주 양육자의 보고를 통한), 친가정으로 귀가할 때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격렬한 울음이나 수면장애 증상이 사라졌다.

4. 형제·자매를 위탁양육하는 가정

형제·자매는 가능하면 한 가정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형제 자매가 같은 대안가정에서 양육받을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훨씬 빠르고 서로 지지가 되어서 외롭지 않아 좋다. 그러나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훈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위탁아동보다 어린 친자가 있다면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1) 형제를 한 가정에서 위탁한 경우

E(6세, 남)와 F(4세, 남) 형제는 IMF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가 생겨 부모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정받은 아동모가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지 못해 친구집에서 기거하다 위탁의뢰하였다.

E와 F 형제는 자영업을 하는 40대 후반 부부 가정에 같이 위탁되었다. E와 F 형제를 맞이한 대안가정은 모가 전업주부이고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 한창 설치고 손이 많이 가는 연령대의 형제에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형제가 함께 있어서 그런지 아동들은 대안가정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주장했고, 기가 죽거나 주눅 드는 일도 없이 개구쟁이 기질을 한껏 발휘했다. 대안가정 모는 아동들의 뒤치다꺼리가 힘에 부치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간혹 아동들이 친부모 이야기를 하며 우울해 하거나 눈물 흘릴 때가 더 힘들었다고 했다.

아동들은 대안가정 부의 실직과 재취업으로 인해 위탁이 종료되었으며, 아동모가 직장 때문에 옮겨간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사례를 이관하여 재위탁 배치되었다.

(2) 자매를 서로 다른 가정에서 위탁한 경우

G(7세, 여)와 H(6세, 여) 자매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동부가 자매를 양육해왔으나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 위탁의뢰 하였다. 언니인 G는 가녀린 체구에 예민한 성격으로 감정표현을 잘 하는 반면, 동생인 H는 초등3년 정도로 보일 정도로 덩치가 크고 둔감한 성격이었다. 자매의 관계는 동생이 언니에게 전적으로 종속된 형태를 유지했고, 매사에 언니가 우선권을 부여받거나 주목받는 것에 아예 이의가 없을 정도로 동생인 H의 자아존중감은 저하되어 있었다. 이들 자매는 서로 다른 가정으로 위탁배치 되었는데, 두 아동을 함께 돌봐줄 대안가정을 찾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동생인 H가 언니인 G의 그늘에 가려 존재감 자체가



없는 상태라 H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가정으로 배치할 필요도 있었다.

G를 맞이한 대안가정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형제를 둔 40대 후반 부부 가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던 중 남편의 권유로 위탁을 하게 되었다. 아들만 있는 집이라 G는 대안가정에서 공주처럼 사랑받으며 생활하고, 단기간에 한글도 익히고 피아노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러나 아이답지 않은 말을 자주 하여 대안가정 부모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잦았다.

H를 맞이한 대안가정은 중학생 남매를 둔 40대 부부 가정이다. H는 의외로 언니와 헤어지는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였고 대안가정에 안정적으로 잘 적응했다. H는 큰 체구와 비만으로 인해 나이에 맞는 옷을 입지 못하고 큰 옷을 길이만 줄여 입어야 했다. 그러나 대안가정에서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 H도 자신이 입고 싶어 하던 옷들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체중이 줄면서 훨씬 예뻐진 아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자신감도 회복했다.

두 아들은 대안가정 자조모임이 있을 때마다 만남을 갖고 있고, 수시로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자매가 한 가정에 위탁되었다면 H는 여전히 언니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채 존재감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품행장애 아동

품행장애 아동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도벽과 거짓말은 양육자를 지치게 만들고 절망감을 안겨준다. 위탁 초기에 도벽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양육자는 대개 부드러운 말로 아동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동이 충분이 알아들었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여긴다.

그러나 아동이 품행장애일 경우, 이런 방법으로는 도벽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도벽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 계속 동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거짓말과 도벽의 증거물들을 앞에 놓고 대부분의 양육자는 분노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아동의 이런 부정적 행동에 대해 단순히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주변인들이 양육자에게 선부른 충고를 하거나 아동에게 더욱 동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빠진 대안가정 양육자는 주변의 시선까지 의식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대안가정 ‘해뜨는집’에서 위탁양육된 아동 중 3명이 품행장애 아동이었다. 세 아동이 모두 약 2년간 위탁되었는데 친부모에게 귀가할 때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위탁된 I(10세, 여)는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어휘력도 5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I는 학습의욕이 전혀 없는데다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매사에 감각적으로 대응하곤 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일관성이 없는 양육을 받은 결과 기본적인 일상의 규칙이나 사회적 규범들을 습득하지 못했고, 대신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임상심리사에게 전문적인 검사를 받은 결과 품행장애로 진단되어, 8개월간 심리상담을 받으며 상당히 안정적으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2년 후 친가정으로 귀가한 후 E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무단결석과 가출을 반복하다 학교를 중퇴하기에 이르렀다.

J(13세, 여)는 초등학교 6년으로 동생인 K(11세, 남)와 함께 위탁되었다.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일관성 없는 양육을 받았는데 도벽, 거짓말, 야뇨증 등 남매의 부정적 행동들에 지친 친척들이 아동 남매를 양육하기를 포기하면서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어 아이들끼리 하숙을 하고 있었다. 이들 남매는 대안가정에 온 첫날부터 양육자의 지갑에 손을 댔고, 교회의 헌금에도 지속적으로 손을 대다가 급기야 헌금을 통째로 훔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이 남매는 2년 후 친부에게 귀가했으나 다시 시설로 보내졌다. 그러나 J는 무단결석과 가출을 반복하고, K는 거의 매일 밤 야뇨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

두 사례가 다 아동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적응해가다가 친가정 복귀 후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친가정 복귀의 문제점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예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친부모가 아동을 다시 데려가기를 원할 경우, 아동이나 친부모의 준비상황 점검에 따라 친가정 복귀시기를 늦추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6. 영구위탁아동

L(17세, 여)은 7년째 대안가정 ‘해뜨는집’에서 살고 있다. L은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조모(75세)와 함께 생활해오던 중 조모의 지병이 악화되어 양로원에 입소하면서 ‘해뜨는집’에 영구위탁보호 되었다. 위탁 후 1년 뒤 L의 보호자인 조모마저 사망하여 현재 L에겐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 게다가 아직 미성년자라 보호자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다. L의 사실상 보호자인 ‘해뜨는집’ 양육자는 아직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L의 친부에 대한 사망신고 절차와 법정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절차를 다 마치는데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은 2007년에 인문계 특성화고교인 대안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자립훈련에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 위탁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으로는 기숙사비만 겨우 충당할 정도여서 대안가정 양육자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부모가 없는 아동에게도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위탁에 대해 대화하기

아동이 위탁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위탁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학교나 친구 등 사회적인 관계에서 위탁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1. 위탁에 대해 대화하기

대부분의 대안가정 부모들은 위탁아동과 위탁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불편을 느낀다.

대안가정 부모들은 아동에게 위탁상황을 상기시킴으로 인해 아동이 대안가정에 소속되지 못하고 분리된 것으로 느끼게 될까봐 조심스럽다.

위탁아동이 너무 어린 경우,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거나 친가정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이 대안가정을 친가정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아동에게 충격과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워한다.



또 아동이 자신이 가정위탁되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이 대화를 회피하거나 어색해 하는 기색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동이 위탁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위탁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학교나 친구 등 사회적인 관계에서 위탁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2. 위탁에 대해 대화해야 하는 이유

① 당사자인 아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위탁의 중심은 아동이다. 가정위탁보호의 전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하며, 최대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위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친가정 복귀이므로 친부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탁양육의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아동의 친가정 복귀이다. 위탁기간 동안 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상을 갖지 않도록 친부모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친부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록 친가정 복귀 이후 아동의 적응도도 높다.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대안가정 부모와 위탁아동 사이에 벽이 없도록 한다.

아동은 대안가정 부모가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친 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혼자 삼키며 지낼 수도 있다. 대안가정 부모와 자유롭게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아동은 대안가정에서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3. 위탁을 주제로 한 적절한 대화방법

① 대화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라.

아동이 “아빠와 나는 왜 성이 다르지? 가족사진에 왜 나는 없지?” 또는 “나는 왜 대안가정에서 살지요?” 등의 질문을 해온다면 그때가 위탁에 대해 대화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② 아동이 위탁된 것은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라.

아동은 ‘내가 나쁜 아이여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와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동이 혹 친가족과 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여긴다면 그렇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아동: 내가 나쁜 아이여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하나요?



대안가정 부모 : 세상에 나쁜 아이란 없단다, 간혹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다 어느 정도는 말썽을 피운단다,

아동 :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나요?

대안가정 부모 : 엄마 아빠가 헤어진 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지 네가 될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란다, 어른들의 세계는 좀 복잡해서 지금 네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단다,

③ 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궁금증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라.

아동은 친부모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 대안가정 부모가 충분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아동은 안도감과 신뢰감을 느낄 것이다.

④ 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는 만큼 솔직하게 답해주면 된다.

이성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너무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아동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대화하고,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부담스러운 질문은 선생님께 물어보자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4.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를 넓힌 후 아동의 반응

대안가정운동본부는 2006년 5월과 8월 2회(총 5일)에 걸친 아동캠프를 통해 대안가정 아동(위탁아동, 친자녀)의 가정위탁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형극으로 재현하면서 가정위탁이 무엇인지, 대안가정은 왜 필요한지, 친부모님이 왜 나를 키우지 못하는지 등 위탁상황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궁금증들이 채워진 아동들은 캠프 이후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표2> 가정위탁에 대해 공부한 후 아동의 반응

민이(12세, 여)	가정위탁과 대안가정에 대해 이해하게 된 후 학원에 가서 친구들을 모아 놓고 대안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유니(8세, 여)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에게 대안가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런데 나는 아빠에게 못 간다.” 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준이(9세, 남)	그 동안 아빠와 헤어진 엄마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는데 교육 후 고모를 통해 아빠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훈이(7세, 남)	친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안가정을 친가정으로 믿고 싶었던 아동은 친가정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5. 아동 - 친부모 만남

1. 아동 - 친부모 만남이 왜 필요한가?

가정위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정 복귀에 있다. 따라서 아동은 대안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친부모와 단절되지 않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대안가정부모와 친부모 그리고 기관의 상담원은 이를 위해 협력해야한다.

가정해체 과정에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한 아동은 대안가정으로 보내지면서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안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아동이 친부모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잠시 헤어



져 지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이 대안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친가정과 대안가정 사이에서 소속감의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이 친가정과 끈을 놓지 않으면서 대안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향후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가 적응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과 친부모의 정기적인 만남은 친부모의 자활의지와 가정복원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크게 작용한다. 이혼하여 각자의 삶을 살던 부부가 1년 만에 재결합한 사례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져 아동을 위탁보냈다가 3년만에 재결합한 사례의 공통점은 아동면접시 친부모가 함께 만나도록 하면서 가정복원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2. 아동 - 친부모 만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① 첫 만남

아동과 친부모의 첫 만남은 아동이 대안가정에 최소한의 적응을 한 이후에 갖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적응이라 하면 대안가정 가족들과 서먹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진 상태로, 일상생활의 기본 규칙이나 양식을 경험적으로 이해한 상태를 말한다.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3개월이 지나면 최소한의 적응이 이루어진다.

대안가정에 최소한의 적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과 친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너무 잦은 만남을 가진 경우, 아동이 대안가정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던 사례가 있다.

② 정기적 만남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짝수 달 둘째 주 토요일’과 같은 식으로 미리 지정해 놓으면 아동이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 언제 친부모를 만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상황은 아동에게 불안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다. 정해진 날 정기적으로 친부모를 만날 수 있게 되면,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위탁기간 동안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부모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③ 비정기적 만남

정기적인 만남이 어려운 경우,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만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아동의 생일, 크리스마스, 방학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



은 아무리 힘들어도 연간 2회 이상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협조가 안 되는 친부모들이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

④ 기간 및 형태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은 대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며칠 혹은 일주일 이상 친가정에서 지내다 돌아올 수도 있고, 한나절 나들이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명절 연휴나 방학이라면 며칠 동안이라도 친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의할 점

① 친부모 만남 이후 아동의 동요

친부모를 만나고 돌아온 아동은 그동안 대안가정에서 익힌 생활습관, 가족 간의 규칙 등 일상이 흐트러지거나 부정적 습관들을 재현하기도 한다. 또는 우울감을 보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탁초기에 종종 발생하며, 친부모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② 친부모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경우

친부모가 아동에게 “며칠(열 밤)만 지나면 다시 만난다”, “내년에 같이 살게 된다” 등의 막연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경우, 아동은 친부모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느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실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친부모에게 주의를 주어 방지하고, 사후에라도 친부모가 아동에게 직접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③ 과도한 선물이나 용돈을 받았을 때

아동에게 미안함이 있는 친부모가 고가의 장난감이나 사치품과 같은 과도한 선물이나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은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옷, 학용품 등)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받은 용돈이 있다면 저금을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아동과 함께 가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



6. 위탁아동 귀가준비

아동의 귀가는 대안가정으로서는 이별을 뜻한다. 대안가정 가족과의 헤어짐의 의미(친가정 복귀)를 잘 이해한 아동은 귀가 후 훨씬 잘 적응할 수 있다.

1. 위탁아동 귀가준비

가정위탁은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부분의 위탁아동은 위탁이 종료되면 친가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친부모가 아동을 데려갈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기도 하며, 때로는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2. 친가정의 과업

친부모가 아동을 데려갈 의향을 밝히면, 구체적인 귀가시기를 결정하고, 위탁기간동안 분리되었던 친가정과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귀가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위탁종료를 결정한 대부분의 친부모는 (내일이라도) 당장 아동을 데려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대안가정 가족들과의 이별이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대안가정 가족과의 헤어짐의 의미(친가정 복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이는 또한 아동이 친가정 복귀 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3. 대안가정의 과업

위탁아동의 귀가가 결정되면 대안가정 가족들은 머리로는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정들었던 아동과의 이별에 슬픔과 상실감을 느낀다. 아동의 귀가는 대안가정으로서의 이별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탁양육이 처음부터 친가정을 대신한 일시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아동이 대안가정 가족들과 헤어져 친가정으로 돌아간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① 아동에게 언제 친가정으로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줘야 한다.

막연히 “조금만 있으면 엄마 아빠랑 살게 될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동에게 불안과 혼란을 줄 수 있다. 아동과 함께 귀가계획표나 달력을 만들어 아동이 귀가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② 아동의 귀가가 대안가정에서의 내쳐짐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은 친부모와 재회하는 대신 대안가정 가족들과 이별해야 한다. 대안가정에서 오랫동안 양육받았거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아동의 경우,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다. 아동은 대안가정 부모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 친가정으로 보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네가 친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은 축하할 일이야. 네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널 그리워하며 네가 행복하기를 기원할거야!” 라고 말해준다. 그러나 간난 아기 때부터 위탁되어 대안가정 가족들이 아동에게 실제적인 친가족으로 인지되어 있는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③ 어떤 위탁아동은 친부모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



어떤 아동은 친가정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부모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기대하는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 친부모가 다시 아동과 함께 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알려주고, 친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아동도 친부모님을 잘 도와 협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④ 아동의 귀가를 앞두고 대안가정 가족들과 이별이벤트를 가지라.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어 아동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하는 것도 괜찮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 이별은 슬프지만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후에 아동이 대안가정 가족들과의 생활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이별이벤트를 기획하여 실행하라.

⑤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때 가져갈 물건을 함께 정리한다.

아동이 입던 옷, 쓰던 이불, 늘 가지고 놀던 장난감 등 아동이 사용하던 익숙한 물건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대안가정에 올 때 가져온 짐의 몇 배나 되는 짐을 가지고 돌아간다. 어려운 친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면 모두 챙겨주는 것이 좋다.

⑥ 아동이 떠난 후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고 깊다.

한때는 내 자식이었던 아동을 친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대안가정 부모는 그리움과 걱정으로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다. 아동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섣불리 다른아동을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헤어짐의 아픔을 충분히 나누고 위로받아야 회복할 수 있다. 이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 다시 대안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4. 귀가프로그램

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결정되면 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등을 고려한 귀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이 유아기에 위탁되어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친부모와 친해지고 친가정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처음 친부모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친부모와 만남을 가져 아동이 친부모와 친해지게 되고, 친가정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대안가정 부모와 친부모가 만나기도 하고, 대안가정에서 이해해줄 경우 친부모가 대안가정을 방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온 경우라면 아동과 친부모와의 적응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



7.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Active Parenting Today」 참조

■ '나' -전달법

(1) '나' -전달법의 장점

- ①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다만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하게 한다.
- ② 부모가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경청하게 된다.
- ③ 자녀의 행동이 야기한 결과로써 부모가 느끼게 된 감정에 대하여 자녀가 분명히 알게 한다.
- ④ 자녀의 행동을 변화하라고 강조할 뿐이지, 자녀의 성격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 ⑤ 부모가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녀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나' - 전달법의 요령

① 당신이 문제점으로 느끼는 행동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한다.

“네가 ~할 때에” 혹은 “~에 문제가 있다.”

예) 나는 네가 식탁 위의 접시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문제란다.

②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는 바를 말한다.

“엄마는 ~에 신경이 쓰이는구나” 혹은 “~에 대해 마음이 상했다”

예) 내가 ~할 때 엄마는 흑사당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③ 당신의 이유를 진술한다.

“~하기 때문” 혹은 “왜냐하면~”

예) 내가 일일이 네 뒤를 따라다니며 치우느라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들기 때문이야.

④ 당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예) 내가 방에서 간식을 다 먹고 나서는 빈 그릇을 부엌으로 가져와 싱크대에 담귀 두기 바란다.

■ 적극적인 의사소통

① 적극적으로 듣는다.

부모의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시켜 공감을 하면서 듣는다.

②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

이야기의 내용이 아닌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어야 한다.

예) “저런, 몹시 기분 나빴겠는걸.”

③ 감정과 이야기 내용을 연결시킨다.

자녀의 감정을 반영시켜주고 그것들이 일어난 사건(이야기의 내용)과 연결시켜 준다.

예) “내 짐작에는 ~처럼 들리는구나.”

④ 대안을 찾아보고 결과를 평가한다.

서두르지 말고 자녀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 내도록 한다. 자녀가 스스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조언을 해 줄수는 있지만, 자녀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말해 주는 일은 절대



피하라.

예)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⑤ 추후지도를 한다.

자녀가 문제를 처리할 기회를 가진 후에는 그 해결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를 자녀에게 물어봄으로써 추후지도를 한다.

예) "그때 일은 어떻게 됐니?"

■ 의사소통의 걸림돌 피하기

<표3> 의사소통의 걸림돌

의사소통의 걸림돌	부모의 의도	걸림돌이 되는 이유
명령하기	상황을 통제하고 재빠른 해결책을 준다.	"너는 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충고하기	논쟁과 의견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너는 스스로 해결책을 떠올릴 만큼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회유하기	고통을 없애 준다. 즉, 자녀의 기분을 더 좋게 해준다.	"너는 네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권리가 없다. 너는 고통을 다룰 능력이 없다."
심문하기	문제의 발단을 알아보고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낸다.	"틀림없이 네가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관심돌리기	화제를 바꿈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보호한다.	"네가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겪어야 할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구나."
심리분석하기	행동을 분석하고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다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 준다.	"나는 너에 대해서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
빈정대기	자신을 바보같이 느끼게 함으로써 자녀의 태도와 행동이 몹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도덕적판단하기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감히 네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다니, 무례하구나. 그건 안 된다."
해결사노릇하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인 부모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



8.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하여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여러 가지 이유(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대안가정)에서 보호·양육하여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리양육제도이다.



2. 가정위탁보호의 목적

① 가정 내 아동보호

위기에 놓인 아동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여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② 아동의 건강한 성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생활

③ 친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을 위탁되어 있는 동안 친부모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안정을 찾도록 도와줌

④ 가족해체 예방

아동위탁 후, 친부모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친가정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

3.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①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②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③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4.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1) 정부지원

①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 당 월 7만 원 + α (구 · 군별)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월 30만원 이상

③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혜택

④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료, 고교등록금) 지원

⑤ 위탁아동 상해보험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0만원이내/인, 년

⑥ 대리양육 · 친인척 전제자금 지원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3~4천만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 친인척 위탁가정

⑦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 빈곤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등의 자산형성과 경제교육 지원
- 본인과 국가가 1:1 매칭을 통해 매월 최대 6만원씩을 만 18세까지 적립하여 자립, 교육자금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제도
- 시행일 : 2007년

※ 대안가정운동본부 지원

- ① 초기지원금 30만원
- ② 생일축하금 5만원
- ③ 양육보조금 20만원 / 월(비수급자 아동)
- ④ 피복비 10만원 / 년(비수급자 아동)
- ⑤ 심리검사 및 정신과 상담료 지원
- ⑥ 명절, 어린이날 선물 지원

5. 가정위탁보호 현황

우리 나라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2000년 1,772명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시작한 2003년 7,565명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 12,562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위탁아동의 90% 이상이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을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위탁으로 전환한 경우이며, 순수한 일반가정 위탁아동은 7.9%에 불과한 실정이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갈 길이 아직 멀다.

<표4> 가정위탁보호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일반위탁	가정수			283	435	662	772
	아동수	114	241	394	566	869	1,003
친인척위탁	가정수	149	324		2,563	3,057	2,966
	아동수			3,387	3,541	4,133	4,007
대리양육	가정수	1,584	2,931		2,315	3,450	5,078
	아동수			1,796	3,458	5,196	7,552
계	가정수	39	1,770	3,655	5,313	7,169	8,816
	아동수	1,772	4,425	5,577 5,029*	7,565	10,198	12,562

▲ 보건복지부 통계

*2002년 위탁아동수에 불일치를 보임. (2005년 3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5,577명이나 2006년 자료에서는 5,029명)



9. 가정위탁과 입양

■ 가정위탁과 입양의 차이

상담을 하다보면 가정위탁과 입양에 대해 혼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가정위탁이나 입양이나 위기에 빠진 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양육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정 내 아동의 법적인 지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표5〉 가정위탁과 입양의 비교

	가 정 위 탁	입 양
호적 및 친권	친부모	입양부모
가족내 지위	법적으로 타인, 동거인(주민등록상)	합법적인 가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 취득
보호기간	일시적	영구적
대상아동	유호적 아동(무호적 아동은 위탁불가)	무호적 아동(미혼모 아동) 선호
상담기관	가정위탁전문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시설
정부지원	생계비 및 양육비(월 40만원 내외)	양육비(월 10만원/13세까지) - 2007년부터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아동은 입양되면서 친부모와의 모든 법적인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 입양과 동시에 아동은 양부모의 호적에 오르고, 유산상속은 물론 가족원으로서의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안가정이다. 또한 입양은 단순히 불쌍한 아동을 돌본다는 차원이 아니라, 출산과 마찬가지로 가슴으로 산고를 치르며 자녀를 맞이하며 형성되는 가족관계이다. 부모와 아동이 서로 소속감이 분명하고,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가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입양되는 아동이 주로 호적이 없는 미혼모에 의한 아동으로 극히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입양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가정위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정위탁은 법적으로 아동이 친부모에게 귀속되어 있으면서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대리양육 하는 것이다. 즉, 아동의 친권과 호적은 친부모에게 있으면서 주민등록 상 위탁가정에 동거인으로 등재된다.

미혼 엄마가 아동을 위탁의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동을 양육할 최소한의 준비를 할 동안 아동을 맡아달라는 내용이다. 미혼 엄마로써 이 사회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안 없이 막연히 몇 년간 일하면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이 대부분이라 우려를 낳는다.

문제는 아동이 입양이 되려면 호적이 없는 것이 좋고 가정위탁 되려면 반드시 호적, 즉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양육의지를 가진 미혼엄마가 자신의 호적에 아동을 올려 출생신고를 하고 기르다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뒤늦게 다시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 아동은



입양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기 쉽다.

■ 위탁아동을 입양할 경우

위탁양육하던 아동을 입양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우선 아동의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던 대안가정에서 입양의 의사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아동의 입양은 이제까지의 위탁여부와 상관없이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은 이미 호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자입양절차를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아동의 친부모와 아동을 입양하려는 대안가정 부모가 동시에 동일한 입양기관에서 입양신청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경우는 몹시 드물다. 대부분의 위탁아동은 친부모에 의해 의뢰되며, 아동을 영구히 포기할 의향이 없는 친부모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가정위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라지는 부모들도 증가하고 있어,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을 박탈해서라도 입양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표6>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동수

구분	입양기관			입양아동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1990	31	27	4	4,609	1,647	2,962
1995	27	23	4	3,205	1,025	2,180
2000	26	22	4	4,046	1,686	2,360
2001	24	20	4	4,206	1,770	2,436
2002	22	18	4	4,059	1,694	2,365
2003	23	19	4	3,851	1,564	2,287
2004	23	19	4	3,899	1,641	2,258
2005	24	20	4	3,562	1,461	2,101



9. 궁금해요!



아동을 맞이하기 전에 대안가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아동의 위탁배치가 결정되면 대안가정에서는 ‘뭐부터 준비하지?’,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걱정으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울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과 흥분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새로 가족이 될 아동과의 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십시오. 새로운 가족원이 들어옴으로 인해 익숙하고 자연스럽던 가족구도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원들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홈페이지(www.daeanhomework.org)의 [대안가정 일기]를 읽으며 다른 대



안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미리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옷, 장난감 등의 물품은 아동을 맞이하고 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 물품을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옷은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기가 올 경우 위험한 물건이 손에 닿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호칭(엄마, 아빠, 이모, 삼촌 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엄마, 아빠라는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2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동에 따라서 큰아빠, 큰엄마, 숙모, 삼촌, 이모, 이모부 등 적절한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하면 좋을지 아동과 의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탁아동 중에는 학교나 학원, 친구들이 위탁중인 상황을 몰랐으면 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대안가정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됩니다.



대안가정과 친가정이 직접 연락(전화나 방문) 하게 되나요?

친가정에서 대안가정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친부모 입장에서 아동이 생활하는 대안가정이 궁금하겠지만,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홈페이지의 [대안가정 일기]를 통해 아동의 모습과 생활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대안가정의 주소나 연락처를 친가정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친가정에서는 언제든지 본 기관을 통해 아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위탁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을 종료하게 된다면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대안가정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위탁을 종료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안가정은 본 기관과 의논하여 위탁종료 일정을 결정하고, 아동과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은 친부모의 상황이 호전되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대안가정에 재위탁 될 수도 있습니다. 대안가정 가족들은 아동을 끝까지 양육하지 못한 데 대해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가정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자와 위탁아동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이 있으면 어찌죠?

친자보다 위탁아동이 많이 어릴수록 아이들의 관계는 원만합니다. 친자와 위탁아동이 비슷



한 또래이거나 위탁아동이 더 나이가 많을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아동과 친자가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친자는 자신의 자리를 위탁아동에게 빼앗겼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탁아동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성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간의 갈등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크게 다치거나 아파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탁아동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대부분 의료급여 혜택을 보지만, 비급여항목도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 기관에서 일정 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상해보험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최초 위탁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장기위탁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동은 1년 안에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은 현 대안가정의 의사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다른 대안가정을 찾아 재위탁 하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정도 대안가정이 될 수 있나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대안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자녀의 연령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위탁아동의 연령을 잘 고려해야겠지요. 대부분의 대안가정은 엄마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을 위탁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대안가정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여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동화를 그리곤 합니다. 친자와 위탁아동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 행복한 가족나들이, 감동의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대안가정의 일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대안가정이 되기 전에도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이겠지요. 다른 대안가정들도 똑같은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자연스런 과정의 일부이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동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안가정 길잡이

-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



대안가정운동본부

iii 대안가정운동본부 소개

1. 대안가정운동본부는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친가정을 대신해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할 대안가정을 찾아주고, 아동이 대안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2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어떤 이유로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명제하에 아동



의 사회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가정의 해체로 아동이 방치되거나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을 양육해 줄 대안가정을 찾아주는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정부지원 없이 순수하게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중시하여 소식지 『대안가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및 재정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 대안가정운동은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맞아들이는 것,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내 가정을 열어 그저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보살피는 것,
내 아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과도한 의무감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3. 주요 발자취

2002년 4월 27일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총회
2002년 6월 21일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단법인 허가(대구시)
2002년 10월 3일	제1회 대안가정을 위한 시민걷기대회
2003년 1월 15일	계간 『대안가정』 창간호 발행
2003년 4월 7일	재정부 ‘공익기부금지정단체’ 지정
2003년 6월 27일	창립1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3년 7월 25일	대안가정 홍보 거리 캠페인
2003년 11월 23일	제2회 대안가정을 위한 시민걷기대회
2003년 9월 20일	대안가정부모교육 및 자조모임(연2회)
2004년 5월 26일	대안가정 가족나들이(연1회)
2004년 6월 1일~7월 12일	APT(적극적부모역할훈련-연2회)
2004년 9월 23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구시)
2005년 4월 11일	대안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
2005년 9월 30일~10월 2일	대안가정 홍보 거리 캠페인
2005년 12월 30일	대안가정 일기집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 출간
2006년 2월~9월	대안가정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2006년 4월 11일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을 위한 LOVE CONCERT
2006년 5월 13일~5월 14일	대안가정 아동캠프



2006년 8월 21일~8월 23일 대안가정 아동캠프
 2006년 9월 21일~9월 23일 대구·경북 NGO 박람회

4. 주요사업

(1) 상담사업

- ① 아동위탁상담 : 위탁아동의 현 상황을 점검하여 원만하게 대안가정과 연결이 되도록 지원
- ② 잠재적 대안가정상담 : 대안가정의 참여 동기 확인
- ③ 대안가정 및 친가정 지원상담 : 위탁양육에 대한 상담 지원, 친부모의 자립계획과 노력을 점검 및 지원

(2) 교육사업

- ① 대안가정 기초부모교육 : 예비 대안가정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교육
- ②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ctive Parenting Today) :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능력과 기술 터득,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 마련
- ③ 대안가정 자조모임 : 대안가정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지지와 격려를 나눔
- ④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 ⑤ 아동캠프 : 대안가정 아동의 가정위탁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기초부모교육 (04.5.12)



▲ 적극적부모역할훈련 (04.7.12)



▲ 대안가정 자조모임 (06.1.12)



▲ 부모역량강화 (06.3.15)



▲ 아동캠프 (06.8.21~23)



(3) 대안가정 지원사업

① 재정지원

- 초기지원금 : 30만원(1회에 한함)
- 생일축하금 : 5만원(연 1회)
- 정신과 상담료 : 심리검사, 상담 및 진료비
- 명절,어린이날 선물 지원

※ 위탁아동이 비수급자인 경우 추가 지원

- 양육비 지원 : 월 20만원
- 피복비 지원 : 5만원(연 2회)

② 의료지원

- 주치의 제도 : 대안가정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한 병의원과 주치의를 맺어 아동이 일상적인 건강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20개 병의원 참여, 2006년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주치의 결연을 맺어 170여개 병의원 참여)
- 정신과 상담 및 치료 : 정서적 장애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심리검사 및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치과 진료 지원 : 치과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법률지원

-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

④ 행정지원

- 위탁아동 : 아동 전입 및 수급자 지정 절차 지원
- 대안가정 : 위탁가정 지정 절차 지원

(4) 대안가정 대시민 홍보사업

- ① 소식지 계간 『대안가정』발간
- ② 홈페이지 운영 : 대안가정운동 홍보, 게시판상담, 대안가정일기, 커뮤니티 운영 등
- ③ 대안가정 홍보 설명회 및 강연
- ④ 대안가정을 위한 시민견기대회
- ⑤ 대안가정 홍보 거리 캠페인
- ⑥ 대안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



▲ 대안가정 주치의 진료



▲ 시민권기대회 (03.11.23)



▲ 거리 캠페인 (03.7.25)



▲ 사랑의 콘서트 (05. 4. 11)

(5) 그룹홈 설치 운영(2007년 계획)

장기위탁을 요하거나,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아동 그룹홈 설치 운영함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친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동 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5명 내외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꾸려가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니다. 먼저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향하는 만큼 후원해주시요.

❖ 후원방법

정기후원 : 월 5천원 이상 자동이체

십시일반 일시후원

주택마련 기금 빌려주기 : 50만원 이상

❖ 후원계좌

대구은행 : 140-10-000273

예금주 : (사)대안가정운동본부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 지로로 납부하시려면

1.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용지로 은행에서 납부

2.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지로번호 : 6307008)



신한 '아름다운 카드' 포인트로 후원하기

신한은행 기부사이트 아람인(www.arumin.co.kr)에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면제 신용카드 쓰고, 기부도 하세요!

하나. 신한 '아름다운카드' 를 신청한다.

둘. 연회비 없이 알뜰하게 아름다운 소비 시작~

(연회비 면제 / 스타벅스, 아웃백 할인 등 각종 혜택)

셋. 매달 0.5%~0.8% 쌓이는 기부포인트를 즐겁게 후원한다.

(아람인 / 기부네트워크 / 기부처찾기 ➡ 대안가정운동본부 검색)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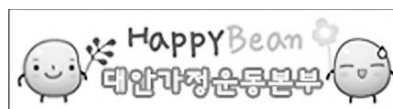


대안가정운동본부 해피로그에

놀러오세요!



네이버 해피빈 - 대안가정운동본부 해피로그에
오시면 핸드폰 신용카드 네이버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 또는 정기후원이 가능하답니다~



<http://happylog.naver.com/foster.do>

대안가정 길잡이

-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

인쇄일 2006년 12월

발행일 2006년 12월

발행인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이사장 이수형

발행기관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 2층

전 화 053-628-2592

전 송 053-628-2595

홈페이지 www.daeanhome.org

이메일 daeanhome@hanmail.net

후 원  해피빈

※ 비매품 / 2006년 해피빈 행복한콩세알 지원사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96-20, 2층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http://www.daeanhomework.org>